

순천시청 공무원 절반 이상 “시의원 갑질 경험”

■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지방의회 인식 등 설문

정책대안 제시 능력 결여· 각종 이권 개입 등 불만족 지역 국회의원실 민생현안 건의 처리 89%가 “부적절”

순천시청 공무원의 절반이 순천시의회들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지부장 이영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23일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조사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체 조합원 1100여명 중 662명이 참여해 60%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 결과 공무원에 대한 의원들의 갑질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갑질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형으로는 권위적인 태도(34%),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23%), 각종 이권 개입(20%), 처리 불가 민원 반복 요구(15%) 순이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응답자의 2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15%는 ‘신뢰한다’고 답변

했다. 의원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는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26%)을 가장 우선했으며 이어 탈권위 의식(22%), 지방자치 이해도(19%), 도덕성(15%), 정책대안 제시(10%) 순이었다. 순천시의회 하반기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이다”(6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정적인 응답도 21% 나왔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보통이다”(6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잘 못하고 있다”(18%)는 부정 응답과 “잘하고 있다”(15%)는 긍정 응답이 비슷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족 사유는 ‘정책 대안 제

시 능력의 결여’(37%), ‘공무원에 대한 각종 갑질’(36%), ‘각종 이권 개입’(21%) 순이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및 입법 활동 긍정 평가는 15%에 불과했다. 선심성 예산의 반영 여부도 응답자의 39%가 ‘있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13%가 응답했다. 의원의 직무 관련 알선 청탁이나 특혜요구의 경우는 3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21%였다. 의원들의 갑질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통한 항의(43%)와 자체 정화 노력(39%), 시민 사회단체와 대외적인 행동 개시(17%) 등 공개적인 문제해결을 선호했다.

특히 비위 및 비리 발생 시 위원들의 책임은 의원직 자진 사퇴(34%), 의회를 통한 제명처리(29%), 윤리위 징계(22%), 지역구 주민에게 공개 사과(15%)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 국회의원실 민생현안 관련 건의 사항 처리에 대해서 89%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7%는 ‘별문제 없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찬성 60%, 반대 26%로 응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지역 경제 회복이 77%로 가장 높았다. 반대 사유는 경제 효과 미약 73%, 재정 악화 2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서울대 청소년 교육·산림연구 ‘맞손’

농생명대학과 교류 협약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 펴기로



광양시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지난 18일 교육·산림보존 및 연구 등에 대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지난 18일 시청 소위원회실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교육·산림보존·연구 등에 대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도비 공동사업 공동 신청, 산림교육 시설물 및 프로그램 상호 지원, 백운산 산림자원 보존·연구 및 임산물 소득증대 방안 등에 협력한다.

특히 광양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산림자원 연구 개발 등을 통한 지역 임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다음달 실무추진회의를 구성하고,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우리나라 농업과 생명과학

요람인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교류 협력 추진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소외계층 ‘사랑의 땀감나누기’ 온정

구례군은 동절기를 앞두고 숯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땀감나누기’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랑의 땀감 나누기는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진 소외계층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군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55세대를 대상으로 땀감 420㎓를 지원할 계획이다.

땀감 배부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함을 감안해 각 세대까지 직접 전달한다.

사랑의 땀감은 군유림과 사유림 숯가꾸기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공공 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해 원목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작으로 만들었



구례군이 숯가꾸기 부산물을 땀감으로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사랑의 땀감 나누기’를 추진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다. 숯가꾸기 부산물 수거는 산불 확산 방지, 산림경관 유지,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친환경 에너지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 사업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귀농인 창업 성공 돕는다

농장 브랜드화·상품 출시 지원

보성군은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 농장 브랜드화와 상품 출시 등 성공적인 귀농 창업을 돕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귀농인 2명을 선발해 보리순 가루와 작두콩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상품화를 지원하고,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했다.

사업에 참여한 JM농업법인과 심곡농원은 농업세무·경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컨설팅, 보리순가루(사진)·녹차가루·우유차·작두콩 관련 차 가공 상품화, 포장재 개발과 홈페이지·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했다.

농업법인 관계자는 “그동안 농장 자체 브랜드가 없어 소비자에게 제품의 고유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번 사업으로 농장 브랜드 로고를 개발해 제품의 가치와 지속적인 상품 판매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의 귀농 창업 활성화 사업은 귀농 5년 이내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장 상징 로고개발 및 홍보물 제작 등 창업 컨설팅, 귀농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아이템 발굴, 농식품 가공 등으로 농업 창업을 돕는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규 농업인이



보성군에 잘 정착해 지역농업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수상

곡성군은 ‘2020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관한 이번 선발대회에서 곡성군은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우수 정책으로 제출했다.

곡성군은 미래교육재단 등 미래를 위한 지역자치 모델과 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상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곡성군의 교육협력 거버넌스는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SA’ 등급,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3회 연속 최우



수상, 정부 합동평가 우수사례 선정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교육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곡성만의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 1작 1작 名작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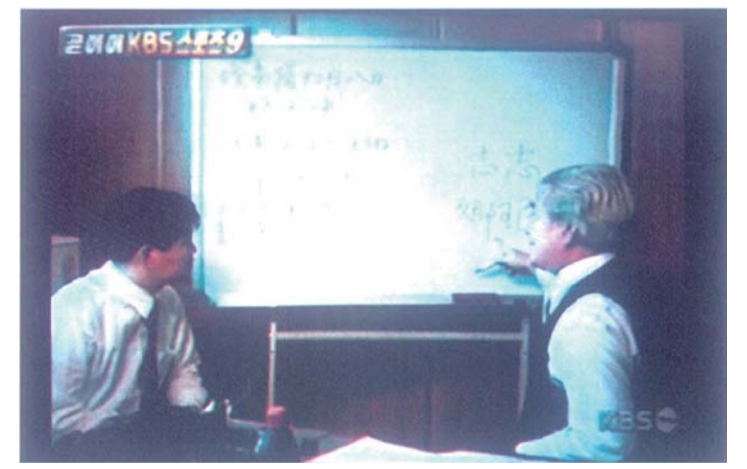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